

# 가족기능성과 학교적응유연성의 관계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 Mediating Effect of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and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고재수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Jae-Soo Ko(jsko37@korea.kr)

### 요약

본 연구는 가족기능성과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중독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부산지역 초등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3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가족기능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부정(-)영향을, 학교적응 유연성에는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가족기능성과 학교적응 유연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를 위한 방안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가정 및 학교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 가족기능성 | 학교적응유연성 | 구조방정식 | 매개효과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adolescents' family function and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on smartphone addiction through verification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attain the goal, the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a survey to elementary school fifth and sixth graders and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Busan during March in 2013.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family function exerts negative effects on smartphone addiction and positive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is found to show partial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 and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Based on the above results of this study, the paper suggests measures to enhance social interest in adolescent smartphone addiction and also methods to prevent smartphone addiction and intervene with families and schools for therapeutic intervention.

■ keyword : |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 Family Function |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 Structural Equation Model | Mediating Effect |

## 1. 서론

모바일 기기의 진화로 인해 이제 ‘손안의 PC’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 문제행동 중 스마트폰 중독은 세간의 관심 밖이었으나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 확산으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은 이제 청소년 문제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매김하였다. 여성가족부(2012)의 2011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32.6%로 2010년 5.8%보다 약 6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가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에 맡겨 2012년 도내 중·고생 1,037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가 스마트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학생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1~3시간이 45%로 가장 많았고, 5시간 이상도 10%나 됐다[1]. 이제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은 생활필수품이자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잠이 드는 순간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새로운 신체의 일부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이 반드시 익혀야 하는 첨단 미래 기기임에는 틀림없으나 생활상의 유익함과 함께 과다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도 동시에 가져왔다는 점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의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인터넷 중독률 10.7%보다 높고, 성인 스마트폰 중독률 9.1%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을 보여주었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게임,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은 기존의 인터넷 중독의 특성에 더해 편리성 증대, 접근성 증대,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애플 활용 가능, 새로운 콘텐츠별 중독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2]. 스마트폰 기기의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맞물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청소년 시기는 정서적으로 민감할 뿐 아니라 자기표현욕구가 강한 시기로 자신이 갖고 싶어

하는 종류의 스마트폰을 소유하거나 원하는 앱이나 게임을 다운받아 사용하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게다가 또래 동조화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특성이 강한 청소년기에는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집착하게 되고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한 세대적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최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동향을 보면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2]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결과[3]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중독 원인을 개인, 가족, 학교차원에서 찾고자 한 연구들[4-8]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다수는 두 변인 간의 단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현대 가족기능성 저하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과 스마트폰이 가진 다양한 매력으로 인한 중독적 사용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이들 변인에 대한 구조적 탐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주된 사회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체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부모와 교사들이 가정이나 학교현장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가족 기능성이 학교적응 유연성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가족기능성과 학교적응 유연성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가족기능성과 학교적응유연성 간의 관계

가족기능성이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행위로서 가족행동을 의미한다. 즉,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이나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나 가족과 환경과의 관계가 반영된 것을 의미하며 가족 전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9]. 이러한 가족기능성은 생물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생물학적 측면에서 가족기능성이란 종족을 유지시키는 것이며, 심리적 측면에서는 가족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한 애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9]. 그리고 가족구성원은 생물학적 측면보다 심리적 측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나 다른 가족들은 가족구성원들이 정서적인 상태를 수용하고 이를 지지, 격려해줄 때 긍정적인 가족기능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가족기능성은 가족구성원뿐 아니라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가족기능성은 가족 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0][11].

가족기능성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탐색한 기존의 연구들[12-16]은 주로 부모자녀관계 특성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방식, 부모자녀 관계의 질 등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초기 사회화과정에서 가정에서의 적절한 애정과 문화적 혜택, 정서적 안정을 갖지 못할 때 학교나 사회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데 이는 가족의 정서적 어려움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부재한 청소년들이 학교를 더 많이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는 국외연구를 통해서도 보고된 바 있다[17].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응집력이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18]에서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가 안정적일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높으며,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Robertson과 Simmons(1989)는 가족의 적응력에서 보면 부모들이 전체적으로 규칙을 계획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자녀의 선택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녀 스스로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가정환경이 청소년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 내의 갈등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처리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사회적 적응 상황에서 긍정적인 해결능력이 낮다고 보고하였다[19].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가족기능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 2. 가족기능성과 스마트폰중독 간의 관계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학교부적응과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가족요인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부모의 이혼, 별거, 부재라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보다는 부부간의 갈등, 가족 간의 불화, 강압적인 자녀양육방식 등으로 인해 가족기능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족의 기능결손이 더욱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20][21]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가족의 외형적인 결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의 질 즉, 가족기능의 결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초기 청소년 시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전환기로 일반가정의 청소년들도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학업 및 진학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학교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주변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크고 작은 위험요소들에 노출된다. 여기에 기능적 결손이라는 위험요소가 더해지게 되면 청소년들은 더욱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기능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중독의 선행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휴대폰중독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의 질이 낮고[22], 휴대폰사용에 대해 부모가 싫어하지만 묵인하는 경우 휴대폰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가족기능과 휴대폰 및 스마트폰중독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와의 친밀감이 적을수록 휴대폰을 강박적, 쾌락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커지며[24], 부모와의 의사소통 불안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 이는 부모의 무관

심과 방임적 양육태도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가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인 사랑과 인정, 관계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회피하고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몰입할 수 있으며[26-28], 부모와의 애착이 낮은 만큼 휴대폰을 통해 신뢰할 만한 애착대상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 과다사용의 원인으로 부모자녀 간 관계 결여로 볼 수 있다[29].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가족기능성의 문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폰 중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Young(1999)은 어떤 가족 내에서 사이버중독으로 진단되는 것은 인터넷과 강박적인 사용을 하는 청소년과 관련이 있지만 본질의 문제는 바로 가족 내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30]. 청소년이 고립감을 느낄 때 사이버공간에서 억압된 감정을 쏟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가족과 사회로부터 냉대 받게 되면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사이버공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기능성이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3. 스마트폰중독과 학교적응유연성 간의 관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2년 인터넷 중독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성인의 중독률 9.1%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2011년 21.4%였던 스마트폰 보유율이 지난해 64.5%로 크게 증가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하였다[2]. 특히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학업적, 관계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중독이 학교생활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 연구[4]에 의하면 스마트폰 중독은 학교적응유연성의 모든 하위유형인 학교 흥미, 학업태도, 규범준수,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황광민(2004)과 김선희(2005)는 휴대폰중독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31][32]. 또한 학교수업적응에서는 휴대전화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수업에 대한 집중력과 흥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휴대폰사용에 대한 관심을 제시하였다[33].

같은 맥락에서 학교요인과 SNS 이용간의 상관성을 연구한 논문에서는[34] 청소년의 학교공부에 대한 태도는 SNS의 이용시간과 사용목적이 인맥관리일 때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교우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는 SNS 이용활동 빈도와 이용시간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스마트폰중독수준이 높을 경우 학교생활적응유연성이 낮아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스마트폰중독은 가족기능성 저하의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동시에 학교적응유연성을 낮추는 원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족기능성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스마트폰중독이 두 변인의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부산지역의 초등학생 5, 6학년과 중학생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함께 표집 한 이유는 스마트폰 중독은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 중심으로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2]와 함께 신체적 성숙의 지연령화로 인한 청소년의 범위가 최근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수렴한 결과이다. 표본추출은 모집단을 5개의 교육청으로 층화하여 각 집단에서 초등과 중등 각각 1개교씩 할당하여 연구에 도움을 주기로 한 학교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의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2개교, 동대교육지원청 소속 2개교,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2개교,

남구교육지원청 소속 2개교,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2개교씩 전체 10개교에서 설문에 도움을 주기로 한 학급을 대상으로 1,020명을 표집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문항과 질문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3월에 실시되었으며, 연구자와 조사보조자 2명이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학급의 학생들에게 설문지의 목적을 설명한 다음 학생들이 직접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전체 수집된 자료 중 스마트폰 미소지자와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57부를 제외한 963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은 남학생이 38.7%(373명), 여학생이 61.3%(590명)로 나타나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5학년은 13.5%(130명), 초등6학년은 16.2%(156명), 중학교 1학년은 21.0%(202명), 중학교 2학년 28.0%(270명), 중학교 3학년 21.3%(205명)로 나타났다.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2.1 독립변수: 가족기능성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성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으로 측정된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가족 체계 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연대감을 의미하며, 가족적응성은 가족구성원 간의 상황적 과정과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관계에서의 역할, 규칙, 권력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37]. 본 연구에서 가족적응성과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Porter, Lavee(1985)가 개발한 FACES-III(Family Adaptability - Cohension Evalu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979년에 111문항으로 개발되어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1985년 20개의 문항으로 표준화된 도구로써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척도는 가족응집성 10문항과 가족적응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된다. 각각의 척도별 점수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측

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최미향(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가족응집성은 .79, 가족적응성은 .81로 나타났으며[38], 본 연구에서 가족응집성의 내적일치도는 .806, 가족적응성은 .849로 나타났다.

### 2.2 매개변수: 스마트폰중독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의존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 초조 등의 강박적인 증상을 느끼며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함에도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39].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청소년 자가진단용 스마트폰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일상생활장애(1요인, 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2요인, 2문항), 금단(3요인, 4문항), 내성(4요인, 4문항)으로 전체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측정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수 범위는 15점부터 60점까지이며, 원점수의 총점이 45점 이상이거나, 1요인이 16점 이상, 3요인이 13점 이상, 4요인이 14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또한 원점수의 총점이 42점 이상 44점 이하이거나 1요인이 14점 이상, 3요인이 12점 이상, 4요인이 13점 이상인 모든 경우에 해당하면 잠재적 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그 외 대상자는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되어진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는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사례가 활용되었다. 개발당시 본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0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척도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사용군을 3개로 분류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전체에서 일반사용자군은 82.5%(794명)로 나타났으며, 잠재적위험군은 8.6%(83명), 고위험군은 8.9%(86명)로 나타나 잠재적위험군과 고위험군을 합한 스마트폰 위험사용군은 전체 17.5%(169명)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비율을 살펴본 결과, 우선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잠재적 위험군이 5.9%(22명), 고위험군은 7.0%(26명)로 전체 남자 조사대상자의 12.9%(48명)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사용자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잠재적위험군은 10.3%(61명), 고위험군은 10.2%(60명)로 조사대상자 전체 여학생의 20.5%(121명)가 스마트폰사용이 중독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중독비율이 약 2배정도 높다는 것을 본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다음 학교급별로 중독비율을 알아본 결과,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전체 초등학교 조사대상자 286명 중 잠재적 위험군은 5.2%(15명), 고위험군은 5.9%(17명)로 잠재적위험군과 고위험군을 합하면 11.1%(32명)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학생의 경우 조사대상자 전체 중학생 677명 중 잠재적 위험군은 10.0%(68명), 고위험군은 10.2%(69명)로 20.2%(137명)가 스마트폰사용에 중독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3 종속변수: 학교적응유연성

학교적응유연성은 적응과 발달을 위협하는 심각한 역경이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유능성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된다[35]. 국내에서 학교적응유연성은 역경 상황을 잘 견디고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있다[36].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유연성은 학교에 대한 흥미(8문항), 규범준수(4문항), 학업태도(3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박현선(1998)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36]. 학교에 대한 흥미는 학교나 교사, 수업에 대한 애착과 흥미정도를 포함하며, 규범준수는 학교의 규칙 및 규범 지키기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학업태도는 수업 시 학업태도 및 수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율적 학습태도 등을 포함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의 측정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채점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유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76으로 나타났으

며,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 대한 흥미 .838, 규범준수 .793, 학업태도 .826이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44로 나타났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학교적응 유연성, 그리고 스마트폰중독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성별 및 학교급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전 모형추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변수의 정규성과 결측치 분포를 점검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후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우선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보면 왜도 값은 -.31~.76, 첨도는 -.58~2.80의 범위에 분포하여 모든 측정변수들의 정규성의 조건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모든 변수들이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1								
②	.70 ***	1							
③	.40 ***	.39 ***	1						
④	.31 ***	.29 ***	.45 ***	1					
⑤	.36 ***	.28 ***	.48 ***	.44 ***	1				
⑥	-.20 ***	-.31 ***	-.18 ***	-.19 ***	-.18 ***	1			
⑦	-.30 ***	-.40 ***	-.29 ***	-.19 ***	-.17 ***	.47 ***	1		
⑧	-.22 ***	-.35 ***	-.25 ***	-.20 ***	-.19 ***	.58 ***	.666 ***	1	
⑨	-.20 ***	-.33 ***	-.25 ***	-.22 ***	-.20 ***	.72 ***	.528 ***	.65 ***	1
M	31.2	37.7	28.6	9.4	14.4	10.9	3.4	7.5	8.8
SD	6.8	6.9	6.0	2.6	3.1	3.1	1.2	2.6	2.7
왜도	-.14	-.31	.10	-.09	-.27	.05	.76	.55	-.02
첨도	-.29	-.58	2.80	-.18	-.10	-.34	.42	-.17	-.57

\*\*\*p<.001, ①가족응집성 ②가족적응성 ③학교흥미 ④학업태도 ⑤규범준수 ⑥일상생활장애 ⑦가상세계지향성 ⑧금단 ⑨내성

## 2. 연구모형 분석

### 2.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과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이 실제 경험적 자료를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 분석은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러한 측정분석은 요인적재량을 통해 추정되는데, 각 잠재변수 당 가장 큰 값의 측정변수를 1.0으로 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요인적재량의 크기를 추정한다. 분석결과,  $\chi^2=725.320(df=164, p=.000)$ , GFI=.924, NFI=.915, CFI=.933, RMSEA=.060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본 연구의 분석자료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p<.001에서 모두 유의미 하였다[표 2].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경로	B	S.E.	t
가족기능→가족응집	1		
가족기능→가족적응	1.034	.056	18.548***
폰중독→가상지향	1		
폰중독→생활장애	2.772	.123	22.440***
스마트폰중독→금단	2.422	.104	23.423***
스마트폰중독→내성	2.548	.107	23.703***
학교적응→학교흥미	1		
학교적응→학업태도	.371	.023	15.979***
학교적응→규범준수	.439	.027	15.986***

\*\*\*p<.001

### 2.2 구조모형 분석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교적응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725.320(df=164, p=.000)$ , GFI=.937, NFI=.929, CFI=.933, RMSEA=.060로 나타나 구조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에 타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는 구조모형에 포함된 경로계수를 통해 직접경로들의 유의성을 판단한 것이다. 분석결과, 가족기능성과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학교적응 유연성 등 모든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가 p<.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가족기능성은 학교적응 유연성은 증가시키고 스마트폰 중독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학교적응 유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B	S.E.	$\beta$	t
가족기능→스마트폰중독	-1.788	.144	-.466	-12.452***
가족기능성→학교적응유연성	3.905	.350	.520	11.158***
스마트폰중독→학교적응유연성	-.429	.082	-.212	-5.233***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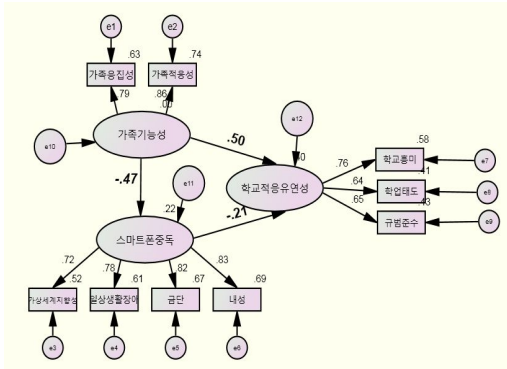


그림 1. 구조모형 분석결과

[그림 1]은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잠재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가족기능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47의 부적인 영향을( $\beta = -.47, p < .001$ ), 학교적응유연성에는 .50의 정적인 영향( $\beta = .50,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기능성이 높으면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낮으며, 학교적응 유연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중독은 학교적응유연성에 .21의 부적인 영향( $\beta = -.21,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유연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조모형의 변수들이 갖는 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구분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가족기능성이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02이며, 스마트폰중독을 매개한 간접효과는 .099로 나타나 직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은 가족기능성과 학교적응유연성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은 Z값이 1.96보다 클 때, 95% 신뢰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40]. 검증결과 가족기능성과 학교적응 유연성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경로에서 구해진 Z값은 4.821( $p = .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스마트폰 중독은 가족기능성과 학교적응 유연성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족기능성→ 스마트폰중독	-1.788 (-.466)	-	-1.788 (-.466)
가족기능성→ 학교적응유연성	3.905 (.502)	.767 (.099)	4.672 (.601)
스마트폰중독→ 학교적응유연성	-.429 (-.212)	-	-.429 (-.212)

표 안의 숫자는 B( $\beta$ ) 값임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함께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스마트폰 중독이 가족기능성과 학교적응 유연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은 총점을 기준으로 볼 때 고위험사용자군이 8.9%(86명), 잠재적사용자군이 8.6%(83명)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17.5%가 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인터넷중독실태조사[2]에서 보고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 18.4%보다 적은 수치이기는 하나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2009년 말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보급률과 비례하여 급속하게 진행되고 그 수위 또한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수준을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결과[2][39][41]로 인터넷 중독과는 달리 스마트폰 중독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욱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급별 스마트폰 중독수준에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중독수준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2][42]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듯 초등과 중학생의 스마트폰중독 수준은 심각할 뿐 아니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의 중독수준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 수준이 심각함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함과 동시에 스마트폰중독의 예방과 치료가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가족기능성은 스마트폰 중독에는 부의 영향을, 학교적응 유연성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기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4][21]와 학교적응 유연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4][31][32]와 같은 맥락에서 지지될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가족기능성의 하위요인인 가족적응성은 선행연구와 조금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가족적응성도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정은숙 외(2012)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43].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종속변수가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차이점과 함께 연구대상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성은 스마트폰 중독을 완화시키고, 학교적응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족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어야 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은 가족기능성과 학교적응 유연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매개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44]를 지지하는 것이며, 가족기능성 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중독에 의존할 경우 학교적응에도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족기능성이 와해되어 스마트폰 중독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을 조기 선별하여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개입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스마트폰 중

독에 대한 개입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입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입은 게임중독에 초점을 두고 남학생 위주의 개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스마트폰 중독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인터넷 중독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스마트폰은 메신저 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중독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 인터넷 중독과는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무조건 사용을 막는 일방적 통제보다는 생활기반으로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올바른 지침마련과 함께 청소년 스스로가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뿐 아니라 기존 연구(한국정보화진흥원, 2013)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인터넷 중독보다 높은 것으로 일관되고 보고되고 있다. 2009년 말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것에 비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중독률이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으로도 담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방적 차원의 개입에서는 무엇보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청소년 보호자 및 학교교사 그리고 청소년 본인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스마트폰 관련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유해차단 앱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는 대상 선별을 위한 정교화 되고 고도화된 도구개발과 함께 치료적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가족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가족은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취약하여 청소년이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과업을 달성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가족은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장이자 자신을 인정받고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차적 체계이다. 가

족기능이 원만하다면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생활적응에서도 통제력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족기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중독의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학교 내 상담교사 및 학교 사회복지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 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한 여건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관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의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 및 수준을 탐색하고 가정기능과 학교적응 유연성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여 탐색한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그 어떤 연령대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표본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점도 중요성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모집단이 일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 또한 가족기능성이 스마트폰 중독의 선행변수이기도 하지만 결과변수로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이 최근의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중독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구의 영역도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뉴시스, *경기지역 청소년 96% 스마트폰 보유*, 2012.11.29.  
 [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2013.  
 [3] 최현석, 어현경, 하정철,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K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3권, 제2호, pp.1005-1015, 2012.  
 [4] 김진영, *초등학생 스마트폰중독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5] 강주연,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대처방식,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6] 이민석, “가상현실 스포츠 시장과 기술”,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제13권, 제2호, pp.33-41, 2010.  
 [7] 조수진, *고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과 자존감, 충동성 및 사회성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8] 황승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9] Ackerman, *Treating the trouble family*, New York: Basic Books, 1966.  
 [10] 김국화, *이혼가정 아동의 가족관련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1] D. H. Olson, C. S. Russell, and D. H. Sprenkle,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Vol.22, pp.69-83, 1993.  
 [12] 류경희,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12호, pp.147-168, 2003.  
 [13] 백경숙, 권용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6권, 제2호, pp.87-99, 2004.  
 [14] 신나나, 도현심,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상호작용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8권, 제3호, pp.99-113, 2000.  
 [15]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정서조절 양식과 부모 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7권, 제1호, pp.167-181, 2004.  
 [16] 이진숙, 정혜정,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 pp.47-61, 2004.

- [17] R. Crosnoe and G. H. Elder, "Family Dynamics, Supportive Relationships and Educational Resilienc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Vol.25, No.5, pp.571-602, 2004.
- [18] 백지숙,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45권, pp.127-137, 2000.
- [19] J. F. Robertson and R. I. Simmons, "Adolescent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adolescent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16, No.6, pp.760-772, 1989.
- [20] 김준호, 인호용, 김선애, 김선업,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청소년비행",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제1호, pp.225-267, 2002.
- [21] 이경탁, 유형근, 권순영, "기능적 결혼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중등교육연구*, 제58권, 제1호, pp.145-175, 2010.
- [22] 박정임, *중학생의 인터넷중독 및 휴대폰중독 수준에 따른 우울, 충동성, 가족관계의 질 차이*,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3] 이연미,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또래동조성 및 휴대폰중독*,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4] 최은영, *청소년의 애착과 성취욕구가 휴대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25] 김병연, 최홍일,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1호, pp.1-25, 2013.
- [26] 김기숙, 김경희, "초등학생의 인터넷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아동간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pp.24-33, 2009.
- [27] 오현희,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된 예측 변인의 탐색*,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8] R. A. Davis,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er in Human Behavior*, Vol.17, No.2, pp.187-195, 2001.
- [29] 최영아,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심리사회 성숙도와 휴대폰 과다사용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0] K. S. Young, Internet addiction: system, evaluation and treatment, In L. VandeCreek & T. L. Jackson(Eds.). *Innovation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Vol.17, pp.19-31,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1999.
- [31] 황광민,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 불안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2] 김선희, *휴대폰중독적 사용 고등학생의 심리특성과 학교생활적응 관계*, 성균관대학교 상업정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5.
- [33] 정석필, *고등학생 휴대전화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34] 김용찬, 유홍식,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 문화 조성*, 한국언론학회와 여성가족부 주최 토론회, 2013.
- [35] A. S. Masten and J. D. Coastworth,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Vol.53, pp.205-221, 1998.
- [36] 박현선,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발달매커니즘",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3호, pp.147-165, 1999.
- [37] D. H. Olson, J. Porter, and Y. Lavee, *FACES-III(Family Adaptability-Cohension Evaluation Scale)*,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Department of Family Social Science, 1985.
- [38] 최미향, *청소년의 정서지능 및 가족기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9]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보고서*, 서울: 행정안전부, 2011.

- [40] B. F. Fuemmeler, L. C. Masse, A. Yaroch, K. Resnicow, and M. K. Campbell, "Psychological mediation of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in the body and soul effectiveness trial," *Health Psychology*, Vol.25, No.4, pp.425-483, 2006.
- [41] 장성화, "개인, 가족, 학교변인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설명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pp.291-310, 2011.
- [42] 박지선, *청소년 및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43] 정은숙, 심문숙,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가족기능성과 인터넷중독",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6권, 제2호, pp.328-340, 2012.
- [44] 아영아, 정원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터넷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2호, pp.331-354, 2012.

### 저 자 소 개

고 재 수(Jae-Soo Ko)

정회원



- 2004년 8월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행정학 석사)
- 2010년 6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수료)
- 2012년 2월 : 부산광역시 청소년

지원담당

- 2013년 7월 ~ 현재 : 부산광역시 예방감사담당
- <관심분야> : 사회과학 콘텐츠